

1960-1970년대 한국의 성경구락부 운동

- 교회학교 운동에서 지역사회학교 운동으로*

마은지 (송실대학교 HK+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II. 1960-1970년대 한국사회와 성경구락부 운동

1. 1960-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
2. 1960-1970년대 성경구락부운동의 양상
3. 성경구락부의 전국 분포와 학교명

III. 지역사회 유형과 성경구락부 교육

1. 지역사회학교 교육
2. 농(어)촌지역 성경구락부
3. 산업 및 공단지역 성경구락부
4. 특수사회 성경구락부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9.08>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ABSTRACT •

The Bible Club Movement in Korea in the 1960's and 1970's: From the Church School Movement to the Community School Movement

HK Prof. Ma, Eun Ji(Soongsil University)

In the 1960s and 1970s, the Bible Club movement in Korea shifted from church school activities to community school activities. This study emphasizes three main points: first, it examines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the Bible Club movement during the 1960s and 1970s. Second, it analyzes the educational contents of Bible Clubs by categorizing them according to different communities. Finally, it investigates the contributions of Bible Club education to the communities during this period.

During this period, Bible Club schools were established around central church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local communities. The church and the Bible Club are based in the local area, forming a structure where the Bible Club, school, community, and church are integrated into one entity. The goal of these Bible Club schools was to cultivate civic-minded citizens needed by the community. Examples of Bible Club schools in rural areas, industrial and factory regions, and special social contexts show that they were closely connected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evolved into community school movements.

Key words: Bible Club Movement, Church School Movement, Community School Movement, Christian Education, Social Education, Bible Club Education

I. 들어가는 말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양 제국주의의 강제적인 개항과 근대화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서양선교사들은 서양과 동아시아의 조우에 일역을 담당하였고, 그들이 가져온 서양의 문화는 토착민들과의 충돌을 낳으면서 변용을 일으키며 토착민들에게 전래되고 수용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전래된 크리스티교라는 외래 종교는 초창기에 수많은 탄압과 박해를 겪으면서 침잠하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¹⁾ 그 반면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한말 조선에서 초창기의 박해와 탄압을 이겨내고 크리스티교²⁾의 선교가 안정적으로 전개되었다. 분명한 사실은 서양의 종교문화에 내재된 근대성과 개혁성 같은 요소들은 토착민들 다수에게는 선진 문명국에서 배워야 할 모방의 대상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이런 근대적인 문명적인 요소들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서양기독교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까닭은 일제의 식민화에 맞설 대안으로서 서양 종교의 이점이 부상하였고, 실제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근대전환기에 개신교는 개인구원, 문명개화, 독립자강,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당대의 비전들이 상호 혼용되어 한국적 기독교의 독특성을 확립하였다.

이 지점에서 서양종교의 전래자인 서양선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개신교의 확산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 단계마다 한국사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한국사회의 근대적 변용에 어떤 존재였는지는 탐구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다. 서양의 내한선교사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전도였

1) M. Antoni J. Ucerler, S.J. "The Samurai & the Cross: Christian Encounters with Japan(1549-1945), 「사무라이와 십자가: 기독교와 일본의 만남(1549-1945)」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제12회 글로벌학술학 포럼 자료집, 2024).

2) 이 글에서 크리스티교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의미하며, 기독교는 개신교를 가리킨다.

고 이를 위한 선교정책은 각국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채택되었다. 일찍이 선교정책으로 채택된 네비우스 방식은 한국개신교의 자생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초기 한국개신교의 성장에 초석이 되었다. 선교사들은 전도, 의료, 교육, 문서, 여성과 관련된 여러 선교사업을 통해 한국인들과의 접촉과 만남을 꾀하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개신교 교단에서 주로 파송된 내한선교사들이 가장 우선시했던 분야는 교육사업이었다. 한 자료에 의하면 1909년까지 선교사들로 인해 설립된 학원의 수는 39개에 달하였다.³⁾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미션스쿨⁴⁾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이후 한국사회의 고등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며 한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경구락부(Bible Club)는 내한선교사의 교육사업의 한 사례를 잘 보여주며 동시에 기독교 교육기관들 가운데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평가받는다. 성경구락부는 교회 안에서 극빈아동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으로 출발하였다. 1929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성경구락부는 평양 경창리를 중심으로 유랑아동을 모아 “개척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성경구락부를 처음 창시한 킨슬러(Francis Kinsler) 선교사가 송실전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끌며 시작된 이 운동은 일제 식민지 정책 아래 가난과 문맹의 질곡 속에 눌러있었던 빈민층 아동과 한국교회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해방 후 성경구락부 운동은 남한으로 옮겨와 재건되었다. 한국전쟁 기간에 피난지로 옮겨다니며 존립을 지속했던 전시 성경구락부는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쟁을 통해 크게 도약하였고, 전후에 전국적인 조직과 운동으로 크게 성장

3)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 『한국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3), 34-35.

4) 한국기독교와 미션스쿨에 관한 연구는 박혜진,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미션스쿨』 (서울: 경인문화사, 2015).

발전하였다.⁵⁾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1960-1970년대에는 정규 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 재건학교, 초급대학까지 각종학교의 형태를 갖춘 교육기관으로서 발전하였고, 성경구락부는 교회학교에서 출발하여 정규학교로 전환되는 역사를 기록하였다.⁶⁾

이러한 역사를 지닌 성경구락부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성경구락부 본부의 간사로서 기관지인 「지도자」의 발행에 관여하며 활동했던 주선동 목사는 성경구락부 운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발표했고⁷⁾ 그 후 몇 편의 학위논문들이 생산되었다. 가장 최근에 선보인 대표적인 몇몇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장금현의 연구는 성경구락부가 일정 기간 공교육을 대신하며 사회통합,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키워주었고, 사회성과 리더십을 고양시키고, 교회성장에 끼친 영향과 기여를 고찰했다. 그의 연구는 선교지부에 따른 지역별 성경구락부의 활동과 특성 및 성경구락부가 정규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지 못했다. 이어서 윤은순의 연구는 성경구락부 가운데 정규학교로 전환된 학교 사례들을 고찰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농촌지역의 성경구락부의 연구를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그 외에도 한국전쟁기를 전후로 한 성경구락부 운동 및 전시 성경구락부의 활동이 한국사회의 변동에 끼친 영향력을 조명한 연구가 있다. 아주 최근에는

5) 한국전쟁기의 성경구락부 운동에 대해서는 마은지, “한국전쟁과 성경구락부 운동,” 『숭실사학』 49 (2022); 옥성득은 한국종교사에서 개신교의 독특한 일면을 ‘개신교의 공간이주, 구체적으로 교회의 무게 중심 이동과 급격한 공간이동을 한국교회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옥성득, “근대성과 한국개신교,”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동아시아 근대와 기독교』 (서울: 세창, 2022), 21.

6) 성경구락부의 정규학교로 전환에 관한 통계는 시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970년 킨슬러 선교사가 은퇴할 당시 환송식 보고 자료에는 45개교, 1988년에 발간된 성경구락부 60주년 기념문집에는 54개교, 1999년 「지도자」(통권 195호)에는 50개교로 기록하고 있다. 정규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는 윤은순, “한국 기독교의 성경구락부 운동 전개와 학교로의 전환,” 『숭실사학』 44(2020).

7) 주선동, “성경구락부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1975).

킨슬러 선교사의 성경구락부 활동에 관한 사진자료집도 출간되었다.⁸⁾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끼친 성경구락부의 사회적 역할을 전제로 하여 1960-1970년대에 성경구락부 운동이 교회학교 중심의 운동에서 지역사회학교 운동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1960-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성경구락부 운동의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성경구락부 운동을 지역사회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유형에 따른 성경구락부의 교육내용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이 시기 지역사회에 기여한 성경구락부 교육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들은 성경구락부의 기관지인 「지도자」, 신문 기사, 교회총회록, 구술사 등을 활용하였다.

II. 1960-1970년대 한국사회와 성경구락부 운동

1. 1960-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결과 한국은 일제강점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만, 한국전쟁의 발발로 한국사회는 이중적인 모순 속에 갇히게 되었다. 즉 세계대전 이후 세계체제의 지정학적 지형은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탈식민지 국가들의 제3세계 독립국가 형성과 냉전체제라는 양극 구도가 형성되었다. 한국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분단과 냉전체제 속에 현대사를 전개해나갔다. 1950년대 한국은 서방의 자유 진영

8) 정병준, “권세열 선교사의 생애와 한국교회에 남긴 공헌,” 『한국기독교와 역사』 55 (2021); 장금현, “프란시스 킨슬러(Francis Kinsler)와 성경구락부(Bible Club) 운동,” 『신학과 실천』 68(2020); 윤은순, “한국 기독교의 성경구락부 운동 전개와 학교로의 전환,” 『승실사학』 44(2020); 마은지, “한국전쟁과 성경구락부 운동” 『승실사학』 49(2022); 마은지 편저, 『킨슬러선교사의 사진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4).

및 반공산 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면서 서방 자본주의 자유진영의 패권국가로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대외적인 국제정치의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적극적인 대외원조와 구호사업으로 전후의 복구와 재건을 이룰 수 있었다. 원조에 의한 한국사회의 재건과 안정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목표였던 만큼 미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과 개입은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다.

그러나 1950년 후반부터 미국의 재정수지 악화와 적자,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원조에서 개발차관과 ‘사회개발’의 강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즉 공산권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안정화를 우선시했던 정책 기조는 또다시 안정화에서 경제성장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경에 따라 1960년대 군사정권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복지국가 건설을 주창했다.⁹⁾ 따라서 1960년대 한국사회는 경제성장과 국가재건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먼저 재건의 목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운동을 통해 반공과 민족주의에 토대를 둔 근대국가의 형성이었다.¹⁰⁾ 즉 세계 최극빈 상태였던 경제 문제의 시급한 해결, 자력갱생형 인간 생산,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조직의 강력한 재편이었다. 이 재건은 정신혁명 및 생활혁명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운동 7개 요강으로 제시되었다. 즉 수해 복구, 반공사상 고취, 건전 기풍 진작, 자조 정신, 표준의례 제정, 민주주의 재건, 국민 합심 통일 성취, 산림녹화, 방황하는 농어촌 청소년 계도, ‘윤락녀 갱생’, 군의

9) 백승욱·이지원, “1960년대 한국의 발전 담론과 ‘사회개발’ 정책의 형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2014), 104.

10) 허은, “5·16 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분단국가 국민운동’ 노선의 결합과 분화,” 『역사문제연구』 11(2023), 32-35; 한석정, 『만주모던』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1), 224.

술선, 지역사회 개발, 저축운동, 스포츠 중흥, 국토 방어, 국토건설, 간척, 사방 공사, 농촌 생활 향상, 불교 분규 해결 등이었다.¹¹⁾

이러한 재건운동을 추진할 중앙회가 출범했을 당시 사상적 배경은 1950년대 신생활운동, 덴마크를 모델로 하는 기독교농민운동, 민족사상운동 등이 합쳐진 것이었다.¹²⁾ 재건국민운동 중앙위원장이었던 유달영은 해방 전 기독교농민운동의 맥을 이어받아 일제시기 전개했던 농촌개발사업을 1950-1960년대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전개했다.¹³⁾ 유달영과 민간 지도자들은 재건을 ‘농촌 개발’로 정의했다. 그리하여 1965년에 시작된 농촌의 재건학교는 “배우며 일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방황하는 농촌 청소년들을 ‘근대화의 엘리트’로 만들어 3개월 만에 전국 2만 6천 명에게 배움의 길을 터줬다고 한다. 재건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농촌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농촌 계몽활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¹⁴⁾ 유달영은 농촌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극한의 난관에 빠져 있던 덴마크를 일으킨 덴마크의 위인 그룬트비와 담가스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덴마크의 선례를 통해 나라의 부흥은 청소년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하였다.¹⁵⁾

196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한국사회의 다른 또 한 가지 과제였던 경제성장을 위해 본격적인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정책은 공

11) 한석정, 『만주모던』, 222-224. 한석정은 19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에서 1960년대 남한의 국가형성 혹은 재건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고속산업화는 세계체제의 외부적 환경과 냉전 체제하 경쟁을 위한 국가 형성, 즉 생산과 국방을 도모한 한국판 국방국가의 형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허은, “5·16 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분단국가 국민운동’ 노선의 결집과 분화,” 19-30.

13) 한석정, 『만주모던』, 242-243.

14) 위의 책, 246.

15) 유달영, “덴마크 교육과 우리 성경 구락부 교육,” 『지도자』 제20권 1호(통권 156) (1974년 1·2월호), 19-24.

업과 제조업 같은 2차 산업인구를 증가시켰고,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도시인구의 급증과 도시화를 초래했다.¹⁶⁾ 관료적 권위주의와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은 전례 없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은 1970년대에 이르러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았다. 다시 말해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농촌사회의 쇠퇴라는 현상을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처 방안으로 1970년대 농촌 환경의 개선과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근대화를 추진했고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의 시각은 외관상 긍정적으로 보이는 환경개선사업의 이면에는 정부와 농민 간의 갈등의 심화, 농민의 경제적 부담 과중,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의 파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농촌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¹⁷⁾

1970년대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를 연구한 왕연의 설명에 따르면, 농촌사회에 나타난 주요 현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와 식량 자급도의 저하, 이촌향도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 농촌의 노동력의 부족과 임금 상승, 도시인구의 집중화와 과밀, 도시화에 따른 도시 빈민의 출현, 그리고 노동문제를 과생시켰다.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산업화는 농촌의 발전을 저해시키며 농촌의 발전을 침체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박정희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이유도 이 같은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른 농촌사회 붕괴를 막고자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¹⁸⁾

1960년대 ‘경제개발’을 기치로 내걸고 농촌의 근대화를 시도하였던 새마을운동¹⁹⁾은 민관이 합작하여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자조를

16) 임성빈, “사회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손봉호·조성표 편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서울: 예영, 2012), 67.

17)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47(1999).

18) 왕연, “새마을운동과 1970년대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1.

통해 삶의 질 상승을 염원했던 농민들의 욕구와 희망이 결합하여 농촌사회의 근대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²⁰⁾ 또한 1970년대를 특징짓는 농정시책으로 농민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도시로 확산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면·자조·협동을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정신’은 국민 전체의 행동철학으로 강조되었고, 농촌근대화운동에서 ‘함께 잘살기’기 위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족의 대약진 운동”으로 확장되었던 것이다.²¹⁾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이라는 정부 정책에 참여를 독려하며 지도력을 발휘했던 이들은 누구였는가? 왕연은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다. 즉 해방 이후 한국의 농촌발전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이들이 청년회와 소년단을 조직하며 마을개발 활동에 추진 주체로 인정받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마을 지도자로 성장한 이들 청년들이 마을발전과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정부의 지원 아래 마을개발 사업을 주도하였다.²²⁾

19)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농촌근대화 사업이라기보다 농민 총동원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안정책이라는 주장(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47(1999)); 정신적 근대화와 근대적 국민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였다는 주장(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사회』 69(2006)); 국가 주도의 농촌근대화의 신화에 반박하며 마을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1970년대 정부와 농민 간의 관계를 마을의 사례를 연구하여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이 단순히 계몽과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 근대화에 참여를 주장하며, 새마을운동 직전 농촌 내부의 자발적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서울: 푸른역사, 2011); 새마을운동 연구를 박정희 정부가 조국근대화라는 가치를 내걸고 추진한 한국사회 재편정책이고, 개발영역에 국한된 연구를 비판하는 시각(허은, 『냉전과 새마을』 (서울: 창비, 2022), 19-20, 31-32)이 존재한다.

20) 왕연, “새마을운동과 1970년대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연구,” vi.

21) 위의 논문, 1.

22) 위의 논문, v.

2. 1960-1970년대 성경구락부운동의 양상

재건과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동시대에 한국개신교에는 폭발적인 성장과 교세의 확장의 시기였다. 교단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초교파적으로 진행된 전도부흥운동에 힘입어 개신교의 교세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교세 확장의 한 요인으로 시대적으로 군사정권의 반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 인권과 노동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인 열망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²³⁾ 다시 말해 한국교회는 경제개발을 지지하면서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에게 선교의 가능성을 엿보았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일례로 1970년대에 초반 빈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기독교계에서도 도시지역 빈민선교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한국교회는 교회학교의 교육정책과 목표를 시정했다. 기독교학교의 교육에서 일대 변화를 꾀했던 것은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정부에서 시행된 고등학교 입학제도, 평준화 제도의 시행이었다. 1969년도의 중학교 무시험 추첨 입학제 시행과 함께 중고등학교의 입학제도의 개선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의 상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기독교 학교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성경, 교과목 수업, 예배와 같은 기독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에 반대하였다. 기독교 학교들은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평준화 제도 시행 이전보다 더 많은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학원선교의 범위를 넓혀 가는 데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²⁴⁾ 이때 학원선교의 범위를

23) 류대영, 『새로 쓴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3), 352-360.

24)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5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01-102.

확장하는데 주요 기반이 되었던 매개체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성경구락부 사업이었다.

1960-19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성경구락부 운동은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비정규 교회학교가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각종 학교 및 정규학교로 전환되었다. 1970년 9월 킨슬러 선교사가 퇴임할 때 퇴임식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성경구락부에서 정규 학교로 승격된 학교는 초, 중, 고, 초급대학 통틀어 총 45개교였다.²⁵⁾ 영락교회의 성경구락부는 교회학교가 정식 학교로의 전환을 가장 잘 실현한 성공 사례였다. 영락교회는 월남한 피난민 자녀들의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해 1952년 6월 10일 ‘영락성경구락부’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60여 명의 전쟁고아와 결손 아동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953년경에는 6학년 649명이 성경구락부를 다녔고, 1964년에는 1천여 명의 아동들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했다. 초등교육 과정을 마친 아동들을 위해, 중등교육 과정의 야간고등공민학교를 1953년에 설립 운영하였고,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 1959년 3월 영락학원 설립인가, 같은 해 4월 영락중·상업고등학교로 정식 인가받아 교회 직영의 중등교육 기관이 되었다.²⁶⁾

다른 또 한 가지 양상은 성경구락부가 지역사회의 변천과 궤를 같이하며 구락부 교육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것은 1970년대 중반 내부적으로 구락부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 교회학교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주요하게 1970년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성경구락부의 위기 현상 때문이었다. 성경구락부에 닥친 위기는 정부의 교육제도의 점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성경구락부의 학생수의 감소와 운영을

25) 마은지 편저, 『킨슬러선교사의 사진자료집』, 24.

26) 영락교회 편, 『영락교회 50년사』(1945~1995)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1998), 212.

어렵게 만들었고 나아가 존립 자체에 타격을 가했다. 그러자 새로운 변화와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김소영 박사는 1970년대 정부 시책이었던 중화학공업에 순응하여 전문학교나 특수학교 교육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²⁷⁾

성경구락부 사업의 변화의 기점은 대략 1974-1975년경이었다. 이 시기에 간행된 교회교육 관련 자료들 가운데 성경구락부 기관지인 「지도자」에서 “지역사회의 변천과 구락부 교육”이라는 특집호를 마련하였다. 당시 총무였던 김찬호 목사는 구락부의 교육은 “한 교회 아래 학교 하나라는 모토로 한국 초대 교회에서 복음운동에 큰 발전을 볼 수 있었는데, 성경구락부는 지역사회 변천에 적응하여 이 사업을 실시해 왔다”²⁸⁾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김찬호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락부 교육의 이념”으로 구락부의 4대 원리 즉 “예수 모방”(인격, 성품, 행동, 생활)과 함께 “4대 생활”(종교·지육·체육·봉사)을 잘하게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생활인을 양성하는데 있으므로 교육내용이 그 지역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창했다.²⁹⁾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락부의 생활 훈련”으로 “스스로 행함으로 배운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방법으로 학생들이 모든 순서를 스스로 진행시키고, 자치훈련의 예시로 회의 진행을 들고 있다. 이것은 제헌 민주국가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필요한 활동이었다. 즉 어떤 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기획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생활훈련을 강조하였다. 한마디로 지역사회를 위한 생활인 양성과 민주국가의 시민양성을 위한 교육이 성경구락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27) 김소영, “변화된 상황과 구락부 운동의 교육 원리,” 「지도자」 20권 제3호, 통권 158호 (1974년 5·6월호), 25.

28) 김찬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경구락부 교육,”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지도자」 통권 144호, 1972년 1·2월호, 10-14.

29) 김찬호, “성경구락부 교육과정,” 「지도자」 제98호, 1966년 10월호, 15.

3. 성경구락부의 전국 분포와 학교명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민적 시민양성을 위해 성경구락부 학교는 지역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져야 했다. 다시 말해 교회와 성경구락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락부-학교-지역-교회가 일체가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관지 「지도자」 1975년 1-4월호에서 당시 성경구락부의 전국적인 설립 현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성경구락부가 쇠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70년대 중반은 성경구락부의 운동의 정점에 해당되는 시기로 간주할 수 있다. 아래의 표들에서 지부명, 구락부명, 학교명, 지역, 주소에서 성경구락부가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역의 구락부 학교의 설립과 교육 목표를 추측할 수 있다³⁰⁾ <표 1>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의 지방 지부 명단, <표 2>는 경상도, 부산, 진주의 지방 지부 명단, <표 3>은 성경구락부 서울지부 명단(경기지역), <표 4>와 <표 5>는 성경구락부 서울지부 명단이다.

<표 1> 성경구락부 지방 지부 명단(강원, 충청, 전라, 제주)³¹⁾

지부명	구락부명	학교명	지역	지부명	구락부명	학교명	지역
강동	황지	황지고공	삼척 황지 2리	전북	시온	군산기술	군산 미원동
	장성	장성고공	삼척 장성 5리		사봉	영민	완주 사봉리
	영동	영동고공	강릉 교동		시온	시원육안원	익산 온수리
충북	호죽	호죽고공	청원 호죽리		어청	어청	육구어청도리
	대명	대명	음성 용계리	목포	성광	성광	신안 신촌리

30) 아래의 표들은 「지도자」에 수록된 구락부들을 필자가 편의상 분류하여 작성함.

31) 「지도자」 통권 162호, 1975년 1-4월호, 56-59.

	무극	무극고공	음성 무극리		희망	희망	무안 청천리
	용원	용원	중원 용원리		화흥	화흥	완도 화흥리
	영광	영광	충주 목행동		오음	오음	신안 오음리
	청운	청운농림	진천 벽암리		새별	새별	해남 저상리
충남	충화	충화고공	부여 지식리	광주	신광	신광	목포 석현동
	홍산	홍산	부여 북촌리		대동	대동	함평 덕산리
	회산	외산중	부여 만수리		다촌	다촌	신안 예리
	팔봉	팔봉중	서산 어송리		산남	산남	함평 산남리
	주산	주산	보령 야룡리		제일	제일	광주제일교회
	대천	대명중	보령 대천리		삼애	삼애	광양 금호리
	원북	계도농축	보령 반계리		낙안	낙안	승주 낙안중앙교회
	성실	성실중	서천 한산리		여천	여천고공	여천 덕양리
대전	제일	제일	대전제일교회	순천	여흥	여흥고공	여수 덕충리
	천안	천안중앙	천안중앙교회		삼광	삼광중	보성 장좌리
	에넬	에넬	대덕상소교회		남열	남열	고흥 남열리
제주	영락	영락고공	제주 1도 2리		신안	신안고공	고흥 신안리
	신우	신우고공	남제주 상모리		고성	고성	고흥 길두리
					시산	시산	고흥 시산리

〈표 2〉 성경구락부 지방 지부 명단(경상도, 부산, 진주)³²⁾

지부명	구락부명	학교명	지역	지부명	구락부명	학교명	지역
경북	성동	성동고공	칠곡 평북동	경안	탑리	탑리중	의성 탑리동
	중리	금송고공	성주 중리		길안	길안	안동 천지동
	성화	성화실업	칠곡 봉암동		지보	지보재건	예천 소화리
	창산	창산실업	영천 삼호1동		한알	한알중	예천 오천동
	산당	산당고공	고령 산당동		동산	동산중	영주 영주읍
	성진	성진	청도 동산동		내성	신광실업	봉화 교촌동
	신광중고	신광고공	대구 대명동		진성	진성중	청송 이촌동
	삼성	삼성기술	청도 동상동		풍산	풍산	안동 하리동

32) 위의 글.

	대한 성경기술	대한 성경기술	대구 칠성동		예천	예천고공	예천 노화동
	B.B.S		대구 계명대학교		보성	보성중	청송 진안동
경서	상주	상주고공	상주 서성동		오촌	오촌	영덕 오촌1동
	성전	성전고공	선산 원평동		경운	경운고공	청송 청운동
	개성	개성농업	상주 복룡동		비둘기	영경고공	부산 사직동
	상주	상주 상업전수	상주 복룡동		양성	양성	부산 좌천동
	성선	성선고공	선산 동부동		반송	반송재건	부산 반송동
경동	경주	성경고공	경주 노동동	부산	승신	승신	부산 용당동
	성화	성화고공	영천 성내동		성심	성심고공	부산 동대신동3가
	청진	청진	영일 청진리		양정	양정	울산 양정동
	동해	동해고공	월성 입실리		항서	항서	부산 부용동
	효자	효자	영일 효자동		신촌	신촌	부산 괴정
	죽천	죽천	영일 죽천동		범일	범일재건	부산 범천 2동
	단포	단포	영천 단포리		반석	반석	부산 두구동
	자명	자명	영일군		영락	영락고공	부산 부민동
	밀양	밀양고공	밀양 내일동		성광	성광	부산 덕천동
경남	남부	남부고공	밀양남부교회	진주	야로	야로	합천 하빈리
	웨슬레	웨슬레 고공	마산 회원동		염광	염광	거창 기리
	갈릴리	갈릴리 고공	마산 산호동		원기	원기	거창 원기동
	부북	부북재건	밀양 춘화리		남해	남해	남해 북변동
	의간	의간	거제 의간리		동천	동천	남해 동천리
	거림	거림	거제 거림리		상가	상가	남해 상가리
					동산	동산	진주 중앙동
			남성	남성고공	남해 북변동		

〈표 1〉과 〈표 2〉의 성경구락부 지방 지부 명단은 개체구락부가 소속된 지방 지역의 지부명, 구락부명, 학교명 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학생수와

교사수에 대한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 이 표에서 구락부의 학교명이 다양하고, 구락부가 조직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부 성경구락부가 교회학교에서 공민학교, 전수학교, 농업학교, 실업학교, 기술학교 등 각종학교로 전환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표 3〉 성경구락부 서울지부 명단(경기지역)³³⁾

구락부명	학교명	지역	설립 연도	학생수	교사
가평중등구락부	신영고등공민학교	가평	1958.7.14	351명 (남145, 여206)	9명 (남5, 여4)
결운중등구락부		홍천	1965.3.15	81명 (남44, 여37)	5명 (남4, 여1)
광덕중등구락부	광덕고등공민학교	시흥 철산	1973.3.21	57명	5명
고랑포중등구락부		연천 원당교회			
교문중등구락부		교문리	1972. 9.	150명 (남61, 여89)	7명 (남6, 여1)
늘푸른중등구락부	늘푸른중학원	울정리	1962	87명 (남30, 여57)	5명 (남4, 여1)
대회산중등구락부		포천 대회산	1972.3.20	4명(남1, 여1)	2명 (남1, 여1)
만성중등구락부		광주 만성리	1965.3.	44명	4명
복성중등구락부		가평 목동리	1961.1.21	65명 (남25, 여40)	5명 (남3, 여2)
사내중등구락부		화천 광덕1리	1974	36명 (남20, 여16)	
사능중등구락부	신명중등학원	양주 사능리	1964.9.	110명 (남45, 여65)	8명 (남5, 여3)
상수중등구락부		양주 상수1리	1968.8.15	76명 (남31, 여45)	5명 (남2, 여3)

33) 위의 글, 60-68.

상용중고등 구락부	상용고등공민학교	성남 여수동	1969.8.	198명 (남109, 여89)	6명 (남4, 여2)
성광농예중 등구락부	성광농예기술학교	연천 진상리	1971.3.15.	46명 (남21, 여26)	6명 (남3, 여3)
성남중등 구락부	성남상업전수학교	성남 성남동	1970.3.	805명 (남510, 여295)	16명 (남13, 여3)
성지중등 구락부		성남 단대동	1974.3.3	35명 (남12, 여23)	7명 (남3, 여4)
송덕중등 구락부	송덕중학교	인천 송현동	1966.3.	1,770명	40명
신광중등 구락부		양주 동두천 신광교회			
신성중등 구락부	신성고등공민학교	양주 연평리	1956.4.13	210명 (남90, 여120)	6명 (남4, 여2)
안양동중 구락부	안양동중고등학교	안양 관양동	1967.12. (중학교) 1974.1. (고등학교)		
양동중등 구락부	의화동림기술학교	양평 쌍학리	1965.3.	150명 (남68, 여82)	6명 (남4, 여2)
양서중등 구락부	양서농예기술학교	양평 용담리	1957.4.	207명 (남91, 여116)	7명 (남4, 여3)
연수중등 구락부		양평 연수리 연수교회			
용문새마을 중등구락부		양평 용문교회			
용성중고등 구락부	용성중고등재건 학교	양평 마룡리	1965.3.	118명 (남41, 여77)	7명 (남5, 여2)
임마누엘중 등구락부		평택 안정리			
제일실업중 등구락부		성남 은행동	1971.11.	212명 (남105, 여107)	37명 (남25, 여12)
주내중등 구락부	주내농예기술학교	양주 마전리	1959.4.	111명 (남45, 여66)	8명 (남6, 여2)
초성중등 구락부		포천 대전리			

효신중등 구락부	효신상업전수학교	강원도 춘천 온의동	1959.4.	707명 (남344, 여363)	17명 (남14, 여3)
-------------	----------	------------------	---------	----------------------	------------------

위의 <표 3>은 서울지부 산하 경기지역 성경구락부이다. 학교명에서 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재건학교, 기술학교, 농예기술학교, 상업전수학교 등 여러 형태의 특성화된 학교명들이 두드러진다. 이들 각종 특성화 학교들 가운데 비교적 학생수가 많은 성경구락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 3월에 설립된 성남중등구락부의 성남상업전수학교는 학생수가 무려 805명(남510, 여295), 교사수는 16명(남13, 여3)이었다. 또 경기도 인천시 송현동 송덕중등구락부의 송덕중학교는 1966년 3월에 설립되었는데 학생수는 1,770명, 교사수는 40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였다.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에 1959년 4월에 설립된 효신중등구락부의 효신상업전수학교는 학생수가 707명(남344, 여363), 교사수가 17명(남14, 여3)이고 대한예수교 성경장로회 소속이었다. 또한 <표 3>에서 농촌 성경구락부의 경우 중등구락부 가운데 몇몇 구락부는 ‘농예기술학교’라는 학교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주내중등구락부의 주내농예기술학교는 양주 마전리 지역에 1959년 4월에 설립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학생 111명(남45, 여66), 교사 8명(남6, 여2)으로 구성되었다. 이같이 농촌 성경구락부 학교들은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구락부들이 많았고, “흙을 사랑하자”를 교훈으로 내세워 농촌의 마을 학교로서 그 지역에 필요한 농사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아래의 <표 4>에서 서울지부 구락부 명단을 살펴보면 지방 지부들의 정보들과 달리 지역의 분포, 구락부의 학교명, 설립 연도, 학생수 및 교사수의 통계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표 4〉 성경구락부 서울지부 명단(서울 지역 I)³⁴⁾

구락부명	학교명	지역	설립 연도	학생수	교사
경운중등 구락부	경운고등공민학교	도봉동	1967.12.20	197명 (남63, 여116)	15명 (남11, 여4)
광문중등 구락부	광문고등공민학교	구의동	1953.5.20	316명	9명
고척중등 구락부		고척동	1972. 1.	60 (남17, 여43)	11명 (남7, 여4)
금호중등 구락부	금호고등공민학교	금호동	1970.12.30	332명	11명
금화중등 구락부		영천동 금화아파트	1975.4.12	50명	12명
남성중등 구락부		사당동			
대명중등 구락부	대명고등공민학교	종로 이화동	1925.5.	512명 (남276, 여241)	13명 (남11, 여2)
대원중등 구락부	대원고등공민학교	거여동			
도림중등 구락부		도림동	1972.3.	60명 (남10, 여50)	11명 (남8, 여3)
동성중등 구락부		성수2가	1975. 4.	32명	5명
동양중등 구락부	동양고등공민학교	면목동	1973.5.19	300명	10명
동원중등 구락부	동원고등공민학교	영등포구시 흥2동	1967.3.20	256명 (남178, 여78)	9명 (남7, 여2)
동홍고등 구락부	동홍상업전수학교	용두동	1967.3.7	1,328명 (남517, 여811)	33명 (남27, 여6)
망원중등 구락부		망원동	1973.5.	79명 (남31, 여48)	17명 (남6, 여11)
면목중등 구락부		면목동	1974.4.	24명 (여24)	6명 (남3, 여3)
명신중등 구락부		녹번동	1973.4.	98명 (남35, 여63)	교사 (남13, 여5)

34) 위의 글.

무궁화중등 구락부	무궁화중어린이학 교	석관동	1965.9.	200명 (남100, 여100)	9명 (남7, 여2)
배달중등 구락부		답십리4동	1971.3.	75명 (남38, 여37)	36명 (남25, 여11)
베다니 새마을중등 구락부		금호동1가	1972.9.	96명 (남36, 여60)	14명 (남8, 여6)
봉천중등 구락부	봉천고등공민학교	봉천4동	1968.4.	1,041명 (남542, 여499)	27명 (남21, 여6)

도시 성경구락부인 망원중등구락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1973년 5월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이사장은 제3대 성경구락부 본부장이었던 마에린이었고 교장은 주선애로 학생 수가 79명(남31, 여48), 교사 수는 17명(남6, 여11)이었다. 서울 관악구 봉천4동에 위치한 봉천중등구락부인 봉천고등공민학교는 1968년 4월에 설립되었고, 학생 수가 1,041명(남542, 여499), 교사 수가 27명(남21, 여6)으로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한다.

〈표 5〉 성경구락부 서울지부 명단(서울 지역 II)³⁵⁾

구락부명	학교명	지역	설립 연도	학생수	교사
삼덕중등 구락부		홍은2동	1968.3.	64명 (남24, 여40)	16명 (남12, 여4)
삼성중등 구락부		청량리2동	1968.3.	66명 (남23, 여43)	11명 (남9, 여2)
삼성중등 구락부		미아6동	1973.3.	20명 (남9, 여11)	5명 (남5)
상록중등 구락부	상록재건학교	상계1동	1968.10. 13	100명 (남63, 여37)	6명 (남5, 여1)
상원중등 구락부	상원중학원	성수동1가	1965.3.	136명 (남37, 여84) ³⁶⁾	14명 (남10, 여4)

35) 위의 글.

세광중등 구락부	세광상업전수학교	상계동	1966.12.	873명 (남650, 여223)	22명 (남18, 여4)
성동고등 구락부	성동상업전수학교	홍익동	1964.12. 10	3,600명	120명
성수중등 구락부	성수고등공민학교	성수동2가	1955.8.	538명 (남240, 여298)	12명 (남8, 여4)
성진중등 구락부	성진재건학교	답십리2동			
신도중등 구락부	신도재건학교	봉천2동	1966.3.	183명 (남121, 여62)	9명 (남5, 여4)
신생중등 구락부		신림1동	1974.7.8	61명 (남24, 여37)	5명 (남3, 여2)
신월중등 구락부		신정동	1973.12. 20	80명 (남23, 여57)	16명 (남5, 여11)
염광중고등 구락부	염광중고등학교	장위동	1965.12.	4,600명	109명
영생중등 구락부	영생고등공민학교	도원동	1953.10.	192명 (남65, 여127)	11명 (남7, 여4)
영일중등 구락부		신림3동 난곡	1971.3.	145명 (남100, 여45)	10명 (남7, 여3)
월계중등 구락부		월계동	1972.3.5	45명 ³⁷⁾ (남21, 여23)	14명 (남3, 여11)
정희중고등 구락부	정희상업전수학교	구로동	1963.3.1 8	700명 (남300, 여400)	20명 (남14, 여6)
천호고등 구락부	천호상업전수학교	천호동	1968.4.2 7	2,800명	80명
천호중등 구락부	천호병설고등공민 학교	성내동	1962.1.2 7	850명	27명
청구중고등 구락부	청구상업전수학교	홍익동	1955.3.	1,996명 (남1597, 여399)	80명 (남61, 여19)
청진중등 구락부	청진고등공민학교	봉천1동	1971.6.1	300명 (남150, 여150)	11명 (남10, 여1)
태일중고등 구락부	태일중고등학원	삼선로5가	1972.10. 10	68명	11명
피어선고등 구락부	피어선상업 전수학교	신문로 2가			

한강종합 중고등구락부	신수동	1964.4.1 0	785명 (남362, 여423)	96명 (남62, 여34)
----------------	-----	---------------	----------------------	----------------------

위의 <표 5>에서 1966년 12월에 설립된 세광중등구락부의 세광상업전수학교는 학생수가 873명(남650, 여223), 교사 22명(남18, 여4)으로 구성되었다. 성동고등구락부의 성동상업전수학교는 학생수가 3,600명, 교사수는 120명으로 제법 큰 규모의 구락부 학교였다. 또한 1965년 12월에 설립된 염광중고등구락부는 염광중고등학교로 승격되었고, 학생수는 4,600명, 교사수는 109명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와 교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위의 표들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였다. 우선 학교명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학교의 성격들을 나타내며, 도시와 농촌 성경구락부 간에 학교 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당시 도시의 저개발 지역에 구락부 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구락부 소속 교단이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개신교 교단은 대부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 많고, 그 외에 아주 극소수의 구락부가 그리스도의교회(성지중등구락부), 대한기독교장로회(청진중등구락부=청진고등공민학교), 초교파(한강종합중고등구락부), 대한예수교 성경장로회소속(효신중등구락부=효신상업전수학교)이었다.

이같이 지역사회에 설립된 구락부 학교들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발생했다. 1970년대는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교 평준화제도의 시행으로 중등학교 취학률이 상승하였고, 여학생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³⁸⁾ 그로 인해 1970년대 후반부터 구락부가 점차 쇠퇴하

36) 총 학생수와 남녀 학생수의 총계가 다르다.

37) 통계 오류

38) 윤은순, “1970년대 여성중등교육과 여학생 인식,” 『여성과 역사』 33(2020).

는 현상이 나타났다. 쇠퇴의 원인들로 문교부의 시달사항의 실천과 구락부 교육이 본연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경향 사이에 생기는 간극, 교육 관리들의 박해, 교회의 불협조, 미국 교회 보조금의 높은 의존도, 지도자들의 구락부 정신 결여, 무산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시, 개체구락부들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을 본부 제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다양한 이유 때문이었다.

III. 지역사회 유형과 성경구락부 교육

1. 지역사회학교 교육

성경구락부 학교들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사회 속에서 활용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선교의 다원화를 모색하며 지역적 상황과 특수성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접목시켰다. 이는 성경구락부 운동이 궁극적으로 청소년 복음화 전략³⁹⁾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농촌을 중심으로 농촌 청소년 복음화 전략,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로청소년 복음화 전략, 도시 저변층을 중심으로 빈민층 청소년 복음화 전략이 기획되었다. 그러므로 도시사회, 농촌사회, 산업사회, 특수사회의 유형에 따라 성경구락부 운동의 전개 양상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이 필요성이 그토록 강조되었던 것일까? 이 시기 성경구락부의 향방에 관한 한 토의에서 승덕중학교 교감 양희업은 교육의 본질은 한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전체적인 사회의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교육의 발전사를 더듬어 볼 때 프랜시스 파커와 존 듀이에 의해 주창 인도된 아동중심 교육이

39)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사랑의 교육60년』 (서울: 화술, 1988).

1930년대에 미국에서 커다란 비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중심 학교운동 (community centered school)이 대두되었고 미국의 학자 쿡크와 울센 등에 의하여 지역사회학교 운동이 구체화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의 지역사회학교 운동은 주로 미국의 영향에 따라 시작되었고 1953년 1월호 「문교월보」에 한기언 교수의 지역사회학교의 구상에서 시작되어 현재 많은 발전을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⁴⁰⁾ 그러므로 그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봉사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경구락부 교육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이 다시 설정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¹⁾

양희업은 실제로 당시 지역사회 운동(온 마을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학교의 비사회성, 사회의 비교육성을 제거하여 학교 교육의 성과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교육적 시민적 성장을 목적으로 마을 전체의 온 마을 교육이 전남 고흥군의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고흥 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사회의 불신 풍조를 불식하기 위하여 자체정화, 교사들의 지역사회 향토 문화전 형성에 앞장섰다. ‘온 마을 교육으로 인해 청년회, 부녀회 활동 실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29%의 범죄들이 감소했다. 또한 절주운동으로 저축실적이 올랐으며 건전한 오락으로 도박, 청소년의 극장 출입, 다방 출입 감소, 사회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다른 사례들로 전남 광주의 무궁화회 조직, 사랑의 종 운동, 경기도 이천의 시범부락의 지붕개량, 공동 돈사, 전기가설 지하수 개발, 강원도 양양군의 애향단 활동, 전북 순창군의 마을장학회, 전북 남원군의 밝은 마을 운동, 충남의 충무대 활동, 경남 거창군의 화백어머니회 활동 등은 교육의 사회화를 위한 획기적인 역할을 한 사례들이었다.⁴²⁾ 이러한

40) 양희업, “도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지도자」 통권 144호, 1972년 1·2월호, 15.

41) 위의 글, 16.

42) 위의 글.

온 마을 운동 같은 지역사회 운동들로부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락부 교육의 내용과 연계성을 모색했다.

2. 농(어)촌지역 성경구락부

구락부 교육은 정식 학교 교육과는 달리 ‘사회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급변하는 시대에 사회는 구락부가 속한 이런 유형의 사회교육을 더욱 필요로 하였다. 농촌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락부를 만들기 위해 농촌구락부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었다.⁴³⁾ 또한 농촌지역 성경구락부는 인적 네트워크의 활성화 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교회와 긴밀한 유대를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락부의 전교생을 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 교회에 출석시키며 출석하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학교와 지역교회의 연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성경구락부 졸업생 씨클 활동과 지역 청소년의 복음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새마을 4H구락부”, “농사개량구락부”, “새마을 청소년 봉사회” 같은 이런 서클과의 연계, 나아가 성경구락부 출신 지도자들이 이런 씨클의 자원 지도자가 되어, 구락부와 지역교회와 졸업생 씨클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뜻을 모아 서로 협조해 나갈 때, 그 지역 농촌 청소년

43) 농촌 성경구락부 구성 및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사회에서 구락부가 법적 보장을 받기 위해서 군단위 1개 정도 고등공민학교의 인가를 얻어 다른 구락부들은 분교형식으로 혜택을 받도록 한다. 2) 농어촌의 부족한 교재와 시청각 기자재를 공급하도록 도움을 준다. 3) 농촌 구락부와 도시 구락부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문화교류와 농어촌의 우수학생 진학의 길을 마련해주도록 한다. 4)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구락부를 통한 생산 및 소득증대, 신용조합 설치 운영, 영농기술교사 양성 및 파견 기술지도, 구락부 자립을 위해 생산품 재배 단지를 조성, 농촌 지도소 요원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그들을 구락부 교육에 협조하도록 하며, 근면, 성실, 토착화된 지도자 배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청소년서경구락부, 『사랑의교육60년』, 307.

은 복음 중심으로 뭉쳐지고 그 지역 농촌은 잘 사는 농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이자 지역 청소년에 대한 복음화의 길이라고 보았다.⁴⁴⁾

실제로 농촌 성경구락부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자. 주내 중등구락부의 사례는 농촌 성경구락부의 전형이다. 의정부에서 북쪽 방향으로 4Km 지점 양지바른 마을 주내에 설립된 주내 성경 중등성경구락부였다. 농업기술학교로 인가를 받아 농업과 축산과를 두고 종교, 체육, 체육, 봉사 등의 4대 생활의 기틀 아래 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역군을 기르는 모범구락부였다. 이 구락부의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과 정력을 기울였던 이는 기성 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성경구락부 교육에 투신한 김충묵 교감이었다.⁴⁵⁾ 또 다른 농촌 성경구락부의 모범 사례는 전남 고흥의 박석순 목사가 운영했던 길두교회 성경구락부를 들 수 있다.⁴⁶⁾ 앞서 고흥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온 마을 운동과 연계된 구락부의 운영을 추측할 수 있다.

어촌 지역 성경구락부의 사례는 어청도 중등구락부를 들 수 있다. 이 구락부는 설립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어청도리는 한 달에 한 두 번 운행되는 군산에서 여객선으로 네 시간 반을 거리에 있는 서해의 취락 어청도에서 1966년 4월 5일 부임한 강태희 전도사가 처음 성경구락부를 시작했다. 이곳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어 해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30여 명의 어린이 중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어린이는 1/3이 채 되지 않았다. 그는 탈선하는 아이들을 많은 것을 보고 구락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그의 서재에 4-5명으로 시작하여

44) 위의 책, 242.

45) 「지도자」 제126호, 1969년 11월호, 27.

46) 현재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총무이사로 시무하는 성우기 장로님과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 일자: 2024.4.30]

교회당으로 옮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년별 교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체적으로 노력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촌의 구락부의 사정을 알고 한국일보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도움으로 어청도에 도서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난잡했던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주민의 91%가 한글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학령기의 어린이들은 중학교정을 이수하게 되었고 새마을운동과 교회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다.⁴⁷⁾

이같은 농어촌 성경구락부의 사례들은 농어촌 지역사회의 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사회교육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성경구락부는 교회가 중심 기반이 되어 선교, 교육, 계몽,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기능하였다. 때로는 정부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설립 운영된 성경구락부는 지역민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교육과 계몽에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⁴⁸⁾ 요컨대 성경구락부는 교회학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제도권 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농촌계몽운동과 사회교육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3. 산업 및 공단지역 성경구락부

1970년대를 전후로 방위산업계획, 100억 달러 수출계획, 중화학 공업 건설계획의 3개 과제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병기를 생산하는 중화학 공업, 수출 지향 중화학공업 기획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낳았다. 산업화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토지를 버리고 도시로 이주해 나감으로 실향민을 양산했다. 상경한 그들은 주로 구로동 지역의 1, 2, 3공단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당시 한국 유일의 공업도시인 영등포 지역에는 각종 대소기업체가

47) 강태희, “파도는 휘몰아 쳐도,” 『지도자』 통권164호, 1976년 1·2월호, 51-54.

48) 윤은순, “한국 기독교의 성경구락부 운동 전개와 학교로의 전환,” 160.

700여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만도 70개의 업체에 달하였다.⁴⁹⁾

이러한 정부 주도의 크게 밀어붙이기 방식의 산업화의 과정은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 1970년대의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신분적 천대와 학대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산업현장 내외의 연대 움직임은 계급투쟁보다 더 넓은 의미의 인권확보를 위한 민주화 과정의 일환이었다. 이 당시 인권확보를 위한 민주화의 과정,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에 대해 다른 어느 집단보다 앞서 교회가 외부 지원세력이 되어주었다.⁵⁰⁾ 교계의 관심은 도시산업선교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도시산업선교는 개인구원에 골몰한 1970년대의 기성교회와는 달리 적극적인 사회구원의 차원을 강조했다.

산업공단 지역에는 성인도 있었지만, 근로청소년들도 상당수 종사했다. 교계의 입장은 공장의 근로 청소년들을 복음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발 가능성이 가장 무한한 자원으로 간주했다. 공단지역 근로 청소년들이 복음화될 때 그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나아가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 전국 공단지역 수십만 명의 근로 청소년들은 참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로 정신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교회가 선교대상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은 바로 이들 근로 청소년들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⁵¹⁾ 하지만 공단지역 근로 청소년의 복음화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했다. 즉 이 시기에 대두한 산업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반응, 신학적인 결핍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가 교

49) 김명배 엮음, 『영등포산업선교회 자료집(1)』 (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승실대문화선교연구소, 2020), 24.

50) 권태준,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서울: 나남출판, 2006), 407-408.

51)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사랑의교육60년』, 243.

회 중심적인 운영을 하며 공장의 근로 청소년을 외면하고 있었고, 신학적인 방향성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⁵²⁾ 이런 기성교회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이 성경구락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 지역 불우청소년들에게 성경구락부의 역할은 전도의 미개척지이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었다.

도시 산업지역의 성경구락부 교육 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에 무시되고 소외된 무산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1) 구락부의 본부와 각 지부에서 도시 자립구락부와 농촌 미자립구락부와의 자매결연 추진, 2) 지도자 자질 향상을 위한 기술 양성과 이를 위해 년 1-2 차례 지도자 강습을 개최하여 각 방면으로 전문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할 것, 3) 산업체 안에 침투하여 구락부식 교육을 실시할 것, 4) 유능한 지도자를 파송하여 그곳에서 구락부를 조직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본부 또는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자 및 재정을 후원하는 것이었다.⁵³⁾

산업현장에서의 구락부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은 산업선교 운동이 활발했던 곳과 대체로 일치했다. 다시 말해 영등포 구로동 지역은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구락부 사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경구락부 본부의 주요 지도자였던 김찬호 목사가 시무했던 구로동교회는 야간 성경구락부를 운영하며 근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1926년에 창립된 도림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가난한 가정 자녀들을 위한 성경구락부,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학원을 운영하다가 1981년부터 지역사회개발교육원을 설립하여 기독교계의 열린교회 운동의 시범 모델로 지정되었다.⁵⁴⁾ 예장교단사업의 시범교회로서 도림어린이

52) 위의 책, 244.

53) 위의 책, 311-312.

54) “기독교계 「열린 교회」 운동,” 『경향신문』 1991년 12월 7일자.

집, 소암장학회, 영림 신용협동조합을 교육원에 포용하여 주부교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수학교, 도립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청장년 주민들을 포함하는 계층별 지역사회학교로 발전시켰다.⁵⁵⁾

종합하자면 공장산업선교-교회-성경구락부 학교는 상호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이런 연계성은 지속되어 1980년대에는 주로 공단 근처에서 구락부를 설립하여 배움을 갈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중·고등과정의 지식교육과 신앙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20만 명의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락부가 없는 공단지역과 도시에 중·고등학교 미취학 근로 청소년을 위하여 구락부 신설 운동을 펼쳤다.⁵⁶⁾

4. 특수사회 성경구락부

성경구락부 본부는 도시사회, 농어촌사회, 산업사회와 달리 특수 지역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어느 지역사회이든 존재하는 특수사회는 도시, 농어촌, 산업사회 그 어디를 막론하고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극빈자층의 특수지역사회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원 청소년 교육, 직업소년학교, 양아치 소년들, 관광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 교육, 기타 외국군인 주둔지역, 가정의 식모나 사환으로 일하며 자라는 특수지역의 청소년 교육에서 성경구락부 교육을 시도하였다⁵⁷⁾

소년원의 경우 여러 이유로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들은 주로 사회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구치되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국가의 보호 조치를 받았다. 이들

55) “教會에 「지역사회개발반」 개설 도림교회당회장 유의웅목사,” 『조선일보』 1981년 9월 25일자.

56) 『크리스찬신문』, 1988년 6월 11일자.

57) 대한청소년서경구락부, 『사랑의교육60년』, 313-314.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교정 교육이 이뤄지지만 구락부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의 경우 오륜대 소년원, 김해 소년원, 김천 소년원, 인천 소년원은 일반 학교에서 취급하는 교재를 가지고 일반 공무원이 가르치고 있지만, 충분치 않았다. 이런 계층을 위하여 성경구락부 부산지부는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를 파송하여 매 주일 그곳 교도과장과 협의하여 교육하였다. 이런 사례는 학교교육 형태로만 할 수 없는 구락부의 교육방식을 적용한 사례였다.

직업소년학교 교육은 도시사회의 다원화로 가출한 소년들이 구두땀기 등의 수입으로 연명하면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을 직업소년학교(B.B.S) 운동이라고 불렀다. 아직 한국적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이들 청소년에게까지 충분한 교육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성경구락부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소녀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교육해야 하는 기술을 습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수사회로 거론되는 양아치 청소년들은 사회의 외지고 그늘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거처하는 지역도 도시도 모두 흩어져 있다. 이들의 규율, 질서, 사용하는 언어와 사고방식은 특수했다. 또한 관광지역이나 환락가에서 자라는 지역 청소년들은 사회의 가장 위험한 경계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외에도 외국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지역이나 가정의 식모나 사환으로 일하며 자라는 이런 특수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성경구락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도 들어가서 교육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하고 배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 저변층의 청소년들로부터 사회적인 양극화 의식, 빈곤, 무지, 무신앙, 질병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길은 성경공부, 중·고등과정의 학습, 타자 주산 등의 실업교육,

경제생활과 연관된 교육(5시간 기술 및 노동 4시가 정도 교육, 기업체와 연계된 경제활동, 각종 판매, 공예품 생산, 신문배달, 구두 닦기 등), 지도자 양성(정부의 새마을 지도자 양성) 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⁸⁾ 비단 빈곤층뿐만 아니라, 부유층 특수지역사회의 청소년 교육에도 구락부의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했다. 구락부 교육원리가 꼭 가난한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특수지역 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전된 지역의 부유한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⁹⁾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본고는 1960-1970년대 한국의 성경구락부 운동의 양상을 교회학교 운동에서 지역사회학교 운동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해 보았다. 한국사회의 변동과정에서 각 시기마다 성경구락부 활동은 사회 변동과 어떻게 연계되어 전개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사회학의 변천에 따른 성경구락부 운동의 변화를 교육내용 측면에서 포착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1960-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의 양상들과 동시대에 성경구락부의 변화의 양상도 고찰하였다. 1960년대 한국사회는 경제성장과 국가 재건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은 1970년대 또 다른 사회문제들을 낳으면서 전국민적인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민적 시민양성을 위해 성경구락부 학교는 지역사회학의 변천에 따라서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가 세

58) 위의 책, 246.

59) 위의 책, 313-315.

워져야 했다. 교회와 성경구락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구락부-학교-지역-교회가 일체가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성경구락부 운동의 양상들을 지역사회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유형에 따른 성경구락부의 교육을 고찰하였다. 한국교회는 경제 개발을 지지하면서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에게 선교의 가능성을 엿보았고, 이 시기 산업선교 운동이 추진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구락부 운동도 도시 및 산업 지역사회, 농촌 지역사회, 그 외에도 소년원, 직업소년학교, 양아치, 관광지역 및 환락가의 청소년들, 외국군인 주둔 지역의 가정의 식모나 사환으로 살아가는 특수사회의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 성경구락부가 만들어졌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학교명과 교육내용이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이 시기 지역사회와 연계된 성경구락부 교육의 기여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맞는 성경구락부의 설립과 성경구락부 학교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신앙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명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융통성이 1980년대에도 구락부의 존립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성경구락부 운영 사례들에 관한 자료 수집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수사회 성경구락부들의 운영에 관한 더 세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경향신문』

『기독교연합신문』

『복음신문』

『조선일보』

『주간기독교』

「지도자」

『크리스찬신문』

『한국기독교공보』

『한국기독교장로회회보』

『한국일보』

KOREA CALLING

•2차 자료

권오덕. “프랜시스 킨슬러와 숭실대학.”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0(2018), 165-204.

권태준.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서울: 나남, 2006.

김가흔. “한국기독교세계봉사회의 지역사회개발사업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55(2021), 183-214.

김득렬. 『권세열 선교사 전기: 씨를 뿌리러 나왔더니』. 서울: 카이로스, 2007.

김명배 엮음. 『영등포산업선교회 자료집(1)』. 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 · 숭실대문
화선교연구소, 2020.

김수진. 『한국 장로교 총회 창립 100년사: 1912-2012』. 서울: 홍성사, 2012.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서울: 푸른역사, 2011.

김용. “한국 교회 성경구락부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홍수.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의원단체의 구호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3
(2005), 97-124.

_____. 『WCC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 한국전쟁 편』. 서울: 한국기독교역

사연구소, 2003.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사랑의 교육60년』, 서울: 화술, 1988.

_____. 『검은 땅에 피어난 꽃들』. 서울: 보이시사, 1984.

류대영. 『한국 기독교 역사의 재검토』.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마은지. 『킬러 선교사의 사진자료집』,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4.

_____. “한국전쟁과 성경구락부 운동.” 『숭실사학』 49(2022), 333-358.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 『한국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3.

박선영. 『글로벌만주』, 과주: 한올아카데미: 한올애플러스, 2018.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47(1999).

박혜진.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미션스쿨』. 서울: 경인문화사, 2015.

백승욱·이지원. “1960년대 한국의 발전 담론과 ‘사회개발’ 정책의 형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2014),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엮음. 『해방공간과 기독교 II』. 서울: 선인, 2017.

서지에. “한국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 『평양숭실 회고록』.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영락교회 편. 『영락교회 50년사』(1945~1995).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1998.

육성득. “근대성과 한국개신교” 연세대학교 근대학국학연구소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동아시아 근대와 기독교』, 서울: 세창, 2022.

윤은순. “한국 기독교의 성경구락부 운동 전개와 학교로의 전환.” 『숭실사학』 44(2020), 141-163.

_____. “1970년대 여성중등교육과 여학생 인식.” 『여성과 역사』 33(2020), 373-411.

윤정란. “1960-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와 국제적 관계: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51(2023), 247-276.

_____. “1960-70년대 한국기독교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발전-한국기독교노동

- 청년회(JOC)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6(2023), 369-406.
- _____. “1960년대 중반-1980년대 한국가톨릭농민운동의 발전과 독일여성 마리아 사일러(Maria Sailer)의 역할 - 국제기독교기구의 개발 원조를 통한 관계망 구축과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4(2023), 329-372.
- 이선이. “킨슬러가(家)의 현지인 중심적 선교.” 『선교신학』 59(2000), 207-236.
- 이유나. “박형규의 기독교 사회운동론의 형성과 활동: 반독재운동과 빈민 운동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87(2019), 241-274.
- 임성빈. “사회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손봉호·조성표 편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서울: 예영, 2012.
- 임희국. 『평양의 장로교회와 숭실대학』.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
- 왕연. “새마을운동과 1970년대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
- 장금현. “해방 후 경북지역 성경구락부(Bible Club)의 변화-경북 경안노회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3(2020), 93-127.
- _____. “프란시스 킨슬러(Francis Kinsler)와 성경구락부(Bible Club) 운동.” 『신학과 실천』 68(2020), 527-553.
- 정병준. “권세열 선교사의 생애와 한국교회에 남긴 공헌.” 『한국기독교와 역사』 55(2021), 147-181.
- 킨슬러/숭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편. 『권세열 그리고 조선의 풍경』. 서울: 숭실대학교 지식정보처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출판팀, 2017.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5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한석정. 『만주모던』.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한국 개신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서울: 한울, 2003.
- 허은. 『냉전과 새마을』. 서울: 창비, 2022.
- _____. “5·16 준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분단국가 국민운동’ 노선의 결합과 분화.” 『역사문제연구』 11(2023), 11-51.
- Clark, Allen D.. “The Bible Club Movement.” *Korea Calling*.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KIM, HELEN JIN, *Race for Revival: How Cold War South Korea Shaped the American Evangelical Empire*.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Hutchison, William R., *Errand to the Worl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M. Antoni J. Ucerler, S.J., "The Samurai & the Cross: Christian Encounters with Japan(1549-1945)," 「사무라이와 십자가: 기독교와 일본의 만남(1549-1945)」,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제12회 글로벌한국학 포럼 자료집, 2024.

논문투고일: 2024년 07월 16일

심사개시일: 2024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12일

• 국 문 초 록 •

1960-1970년대에 한국의 성경구락부 운동은 교회학교 운동에서 지역사회학교 운동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1960-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경구락부 운동의 변화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성경구락부를 지역사회별로 구분하여 성경구락부의 교육내용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이 시기 지역사회에 끼친 성경구락부 교육의 기여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 성경구락부는 지역사회의 변천에 따라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졌다. 교회와 성경구락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구락부-학교-지역-교회가 일체가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구락부 학교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민적 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농(어)촌지역 성경구락부, 산업 및공단지역 성경구락부, 특수사회 성경구락부의 사례들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지역사회학교 운동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성경구락부 운동, 교회학교 운동, 지역사회학교 운동, 기독교교육, 사회교육, 성경구락부 교육
